

“IMF 때 아버지 일용노동자... 겪었기에 더 실제 같았죠”

“제 어린 시절 있었던 이야기를 영화로 선보이게 됐습니다. (당시와) 현재 무엇이 달라졌는지 영화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영화 ‘소주전쟁’에 출연한 배우 이제훈이 지난 2일 서울 삼성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영화에서 매력을 느낀 지점에 관해 “실제 이야기를 모티브로 영화를 만든 점이 흥미로웠다”며 이렇게 말했다.

‘소주전쟁’은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한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소주를 만드는 회사 국보가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실제 당시 있었던 진로그룹 인수전을 모티브로 삼아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제훈은 국보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글로벌 투자사 솔윈의 인범 역을 연기한다. 그는 어린 시절 IMF 외환위기 여파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영화에 흥미를 느꼈다고 한다. 이제훈은 “IMF 시절은 중학생부터 대학 다니던 때로 기억한다. 자영업을 하던 아버지가 IMF 위기 이후 일용노동자로 일하는 모습을 봤다. 힘든 상황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세대”라며 “확장 시절 얘기여서 그런지 (영화가) 더 실제처럼 느껴졌다”고 돌아봤다.

영화에는 국보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국보그룹과 솔윈이 대결하는 내용이 담겼다. 솔윈은 ‘선진 금융 기업’을 통해 국보의 경영권을 인수하려 하고 국보 그룹은 ‘외국 자본에 국내 기업이 넘어간다’며 국민에 호소한다. 그러나 그 뒤에는 음모와 속임수, 검은 거래가 난무하고 각 인물의 민낯이 드러난다.

그는 “이 영화를 통해 보이고 싶었던 건 위기를 겪고 난 다음 대한민국에 도덕적 해이가 더 팽배해졌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이제훈, 영화 ‘소주전쟁’ 주연

외환위기 시절 주류회사 인수전 그려 국보소주 경영권 노리는 ‘인범’ 연기 “유해진과 ‘케미’ ...다시 작품 하고파”



영화 ‘소주전쟁’ 쇼박스 제공

영화는 회사를 위기에서 구하려는 국보의 재무이사 종목(유해진 분)과 인범의 대비를 통해 관객에게 생각할 지점도 던진다. 종목은 ‘회사가 잘 돼야 나도 잘된다’며 회사를 자기 인생과 동일시하는 반면, 인범은 ‘일은 일이고 인생은 인생’이라며 회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다.

이제훈은 “삶과 일에 관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었다”며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면 이 영화를 통해 느껴보셨으면 좋겠다”고 권했다.

영화는 최윤진 감독과 제작사가 대답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제작사 더랩 측은 최 감독의 각본이 원작자의 시나리오를 탈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영화 크레딧에 최 감독을 ‘현장연출’로 표기했다. 최 감독은 시나리오를 탈취하지 않았으면서 법원에 감독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처분 소송에서 최 감독의 감독계약해지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제훈은 이에 관해 “관객에게 잡음 없이 온전하게 이 영화를 선보이려는 목표 의식이 뚜렷했다”며 “극장에서 보니 고생한 보람이 느껴진다. 이번 작품에 유독 애착이 많이 간다”고 했다.

이제훈은 함께한 배우 유해진에 대한 애정도 보였다. 그는 이번 작품만으로는 아쉽다며 유해진과 또 연기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제가 한국 영화를 집중적으로 봤던 시기가 1990년대 초중반부터 2000년대로 (당시 영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유해진 선배가 항상 계셨다”며 “(‘소주전쟁’에서) 선배님이 자유롭게 연기하며 인물의 생생함을 표현해줘서 두 인물(종목과 인범)의 자연스러운 ‘케미스트리’를 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떠올렸다.

이제훈은 요즘 드라마 두 편을 동시 촬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시그널 2’와 ‘모범택시’ 시즌 3이다. 그도 후속작을 선보이게 된 것에 기대가 크다.

“저도 ‘시그널 2’와 ‘모범택시 3’에 대한 기대가 커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대에 충족하는 작품이 될 거라는 점이지요. 기분 좋게 촬영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연합뉴스



영화 ‘소주전쟁’ 이제훈 쇼박스 제공



걸그룹 아이들 큐브엔터테인먼트 제공

아이들, 첫 일본 아레나 투어

걸그룹 아이들이 데뷔 후 첫 일본 아레나 투어에 나선다.

3일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들은 10월 4~5일 일본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 18~19일 지라이온 아레나 고베에서 총 4회 공연을 펼친다.

아이들은 지난해 일본 도쿄에서 월드투어 콘서트를 열고 2만5,000 관객을 동원한 바 있다.

아레나 투어에 앞서 일본 최대 규모 음악 축제인 ‘서머소닉’(SUMMER SONIC)에도 출연한다. 아이들은 ‘서머소닉’ 주 무대인 마린스테이지에 올라 대표곡 무대를 선보인다.

연합뉴스

디즈니, 영화·TV 수백명 감원

미국의 미디어·콘텐츠 대기업 월트디즈니컴퍼니(이하 디즈니)가 영화와 TV 등 부문에서 인력 수백 명을 감원한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이 2일(현지시간) 전했다.

디즈니 관계자는 이 회사의 감원이 이날 시작됐으며, 해고 대상은 영화와 TV 사업부의 마케팅, 홍보, 캐스팅, 작품 개발 분야와 기업 재정 운영 분야 등을 아우른다고 언론에 밝혔다.

할리우드 대기업들은 수년간 비용 절감을 지속하고 있으며, 영화와 TV 시리즈 등 콘텐츠 제작 편수 감소에 따라 고용 역시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디즈니의 이번 추가 감원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위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디즈니는 2023년 2월 비용 절감을 목표로 7,000여 개의 일자리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발표했다. 지난 3월에도 자회사 ABC 방송과 엔터테인먼트 분야 TV 네트워크에서 약 200명의 직원을 감원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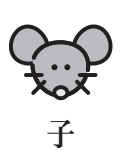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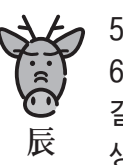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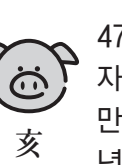
디즈니는 지난해 9월 마감된 회계연도 말 기준 전체 직원 수가 약 23만3,000명으로, 이 가운데 76%가 정규직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지면 사정상 모든 채널과 프로그램을 소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1
5:00 KBS 뉴스특보 6:00 특집 KBS 뉴스광장 7:50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8:00 KBS 뉴스특보 9:00 KBS 뉴스특보 10:00 KBS 뉴스특보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TV 유치원 7:30 생생정보 스페셜 8: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9:30 여왕의 집(재) 10:10 인간극장 스페셜 10:50 신상출시 팬스토랑(재) 12:0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1:35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45 농친예능 따라잡기(재) 3:15 월드 24 3:45 첫! 내 친구는 빅파이버(재) 4:00 TV 유치원(재) 4:30 영상앨범 산(재) 5:00 Why? 5:15 다이노 파워즈 4 5:30 꿀잼 영화가 좋다 6:00 경제콘서트 6:35 2TV 생생정보 7:50 일일드라마 여왕의 집 8:30 슈퍼맨이 돌아왔다 9:50 24시 헬스클럽 11:05 아이 러브 스포츠 11:30 스튜디오 K	5:00 특집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특집 MBC 뉴스투데이 2부 8:30 MBC 뉴스특보 제21대 대통령 당선 1:00 특집 2시 뉴스 외전 5:00 노무사 노무진(재) 6:20 오늘N 7:20 특집 MBC 뉴스데스크 9:00 특집 100분토론 10:30 라디오스타	5:00 특집 모닝와이드 1부 7:30 특집 모닝와이드 2부 9:00 제21대 대통령 취임 다 함께 다시 시작 2:00 특집 뉴스브리핑 4:00 TV 동물농장(재) 5:00 특집 SBS 오뉴스 6:05 생방송 투데이 7:10 특집 SBS 8 뉴스 9:00 골 때리는 그녀들 10:40 사계의 봄	5:50 한국기행(재) 6:10 세계테마기행(재) 7:15 무지개 강아지 딜런의 모험 8:00 덩동덩 덩동덩 8:50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9:20 사내수공업 가수 다비드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PD로그(재) 1:00 EBS 평생학교 2:30 클래스 e 3:55 블록스 4:10 덩동덩 덩동덩 5:00 페파 피그 5:40 도레미 프렌즈 쇼츠 6:10 EBS 뉴스 6:30 건축탐구-집 7:20 고향민국 8:40 세계테마기행 9:35 한국기행 9:55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10:45 EBS 자연 다큐 결작전 11:40 위대한수업 그레이트마인즈

오늘의 운세				6월 4일 (음력 5월 9일)	
 子	48년생 건강은 회복되고 60년생 생각만 하던 것을 실행할 수 있으니 72년생 관계 회복에 힘쓰도록 84년생 목표는 분명히 해야	 卯	51년생 편견 버려야 63년생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75년생 판단은 냉정해야 바른 판단이 87년생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午	42년생 가끔은 여행으로 기분 전환 방법을 54년생 스스로 고집 때문에 갈등이 66년생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78년생 시작이 반
 丑	49년생 외출로 활기 찾고 61년생 지직보다는 칭찬으로 73년생 억울한 상황이라도 대꾸하지 않으면 진실로 만회 85년생 결정권은 내게	 辰	52년생 욕심부려도 같은 결과 64년생 마음만 먹으면 당장 해결 76년생 모르는 것이 약 88년생 지난 것에 미련 버려야 새로운 기운으로	 未	43년생 불투명한 일에 묵언 55년생 무리하지 않게 적당한 운동으로 67년생 인내심으로 만족하는 하루 79년생 할 일은 끝까지 마무리
 寅	50년생 쉬워도 쉬운 듯 보이지 않으니 차근차근 62년생 바꾸지 말고 차근차근 74년생 포기하면 마음 편해지니 86년생 대화가 우선	 巳	41년생 일어나지 않은 일 먼저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53년생 화해로 시기 질투 사라지고 65년생 선부는 판단 주의 77년생 고생 끝	 申	44년생 구관이 명관이다 56년생 결과가 늦어도 포기하지 않도록 68년생 과소비를 자제하지 않으면 후회 80년생 이리저리 바쁜 하루
				 酉	45년생 어려우니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57년생 손실 만회하려면 무조건 구두쇠가 돼야 69년생 내면이 단단하니 문제없고 81년생 변심하지 않도록
				 戌	46년생 구설 생기지 않게 말조심 58년생 든든한 내 편은 하나 70년생 말보다는 행동으로 82년생 기대보다는 최선을 다해야 좋은 결과
				 亥	47년생 내가 주인공이 되어보자 59년생 작은 것에 질투는 그만 71년생 일방적이지 않게 83년생 신경성 소화 불량률 조심하라